



ht p://www.koreacma.org

NEWS

KOREA CHURCH MUSIC ASSOCIATION

제 116호

2022년 4월 9일

발행인 박신화
편집인 김용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6-8)

인사말씀

교회음악 동역자 여러분!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면 다가올 주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의 부활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긴 고난의 터널이 정점을 지나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획기적세미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여름에 재개될 예정인 세미나에서는 지금까지의 아쉬움을 다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직접 대면으로 뵈 때까지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4월 9일에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장 박 신 화

2022년을 위한 기도문

은혜의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속히 전쟁이 끝나 그들이 소유했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힘을 주소서
수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 내려주소서
지도자들을 축복하사 이 나라가 하나되게 하시고
교회가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산실되게 하시어
약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2020년 2월에 시작된 Covid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된 협회의 ZOOM 회의 장면~

코로나 시대의 교회음악사역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접어들었다. 코로나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변했다. 초기에는 코로나 확진자를 범 죄자 취급하고 비방하고 소외시켰던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걸린 사람을 슈퍼 면역자로 부를 정도로 관 대해졌다. 전파가 광범위해지고 치명률이 낮아져서 그럴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근원적 이유 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간의 내면적 적응에 있다고 생각한다. 팬데믹 초기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몰랐고 두 려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점점 적응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오히려 확진자는 초기보다 더 증가했지만 우리의 내면의 관대함은 더 여유스러워졌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역 또한 타인과의 만남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시대변화에 따라 사역 역시 변하 기 마련이다. 코로나 초기엔 예배 시 찬양대 서는 것을 비방하며 최악시 여겼던 것이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방역수 칙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듯하다. 교회음악 사역도 두려움에서 관대함으로 또는 감사함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아마도 외면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내면 중심의 삶으로 향하도록 만든 기회일 수도 있다. 가득 찬 찬양 대의 인원은 곧 은혜라는 방정식에서 소수의 찬양대 일지라도 최선의 찬양으로, 보다 큰 은혜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찬양대 연습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찬양대원들이 음원을 통해 각자 연습해오는 모습, 짧은 연습시간에 최대한 집중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코로나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기도 하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보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러지는 모 습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탁월한 지도자들이 나타났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영적 지도력>(Spiritual Leadership, 요단출판사 역간)에서 '리더십은 곧 영향력'이라고 했다. 설교를 맡은 목회자 는 지성의 언어로, 찬양을 맡은 교회음악 지도자들은 감성의 언어로 모든 예배자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때 은혜 롭고 감격스러운 예배로,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질 것이다.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리더십을 배워야 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의 감당치 못할 사역이라고 포 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닌 최고의 예배와 찬양을 위하여 계속 연구하고 성령의 힘을 구할 때라 생각한다. 외면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내면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며 앞으로 많은 변화로 다가올 세상에 대처하는 선견적 지혜 와 사역은 업적이 아닌 충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때이다.

~글 류한필 편집위원~



故 박재훈 목사님을 추모하며

한국 교회음악의 큰 별 '박재훈 목사(1922~2021)'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동요 150곡, 찬송가 800곡, 합창곡, 오페라 '손양원', '유관순', '함성 1919' 등을 작곡한 '한국 교회음악의 아버 지'로 불리는 작곡가 박재훈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원로)가 지난 8월 2일, 99세를 일기로 캐나다의 트릴리움 병원에 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8월 7일에는 토론토 큰빛교회 임마누엘 채플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개최되었으며 집례 를 담당할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담임)는 다음과 같이 고인을 회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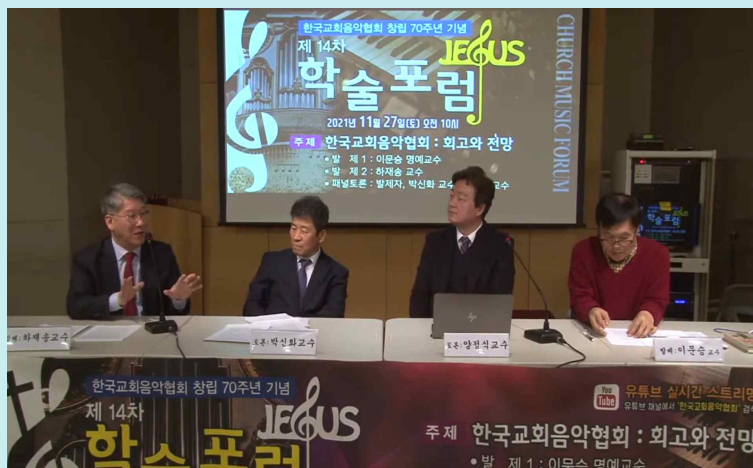
"큰 별이신 목사님은 작은 별들도 수없이 거느리셨습니다. 동요라는 예쁜 별들, 합창곡이라 는 아름다운 별들, 여성 중창곡이라는 청순한 별들, 찬송가라는 거룩한 별들, 그리고 오페라라 는 별 무리를 거느리셨습니다. 6.25 전쟁 후에 선명회 합창단을 만들어 미주에 한국을 알렸 고, 서울 영락교회에서 오랫동안 지휘하시면서 한경직 목사님과 동역하셨고, 교수로서 서울대, 한양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제자들을 키우셨고, 대광고등학교 음악 교사이기도 하습니 다, 러시아에 선교의 문이 열린 후에 러시아 찬송가를 만들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 에 보급해 주셨습니다. 인생 말년에 큰빛교회를 개척하셨으며,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 7년 동안 성가대 지휘자로 섬겨 주셨던 겸손한 목회자이셨습니다."

박재훈 목사의 많은 작품 활동 중 가장 큰 업적은 한국 찬송가 작곡과 보급일 것이다. 그가 찬송한 '어서 돌아오 오(527장)'는 한국을 넘어 미국과 일본 찬송가에 수록되었다. 21세기 찬송가에 실린 9곡의 찬송가(17, 301, 319, 392, 515, 527, 561, 578, 592장)는 신자들의 목소리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드리게 될 것이다.

주 제 “ 한국교회음악협회: 회고와 전망 ”

2021년 11월 27일 (토) 오전 10시 사랑의교회 세미나실에서 학술분과위원회 주최로 제14차 학술포럼이 개최되었다. 한국교회음악협회: 회고와 전망'라는 주제로 이문승 서울신대 명예교수와 하재송 총신대학교 교수가 발제하였으며 본 회의 박신화 이사장과 서울신대 양정식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세미나는 주춤해지는 COVID19의 상황에 따라 현장 대면 세미나가 예견되었으나 갑자기 유행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스트리밍(유튜브)으로 실황 중계되었다. 당일 온라인으로 참가한 인원은 90여명 이었으며 차후 참여 인원은 415명으로 집계되었다.

박신화 이사장은 "오늘 개최되는 세미나가 한국 교회음악의 과거를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기대하며, 모든 교회음악 동역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학술포럼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말을 하였다. .



♣ 이문승 교수 발표 요약문

첫 발제자인 이문승 교수는 "한국교회음악협회-지난 70년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는데 1951년 625전쟁 당시 부산에서 창립된 한국교회음악협회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70년간 이어진 협회의 발전상과 초기부터 지금까지 개최하였던, 교회음악 세미나, 성가합창제, 뉴스레터, 학술포럼 등의 사업과 한국교회의 빛과 사명을 감당한 도구이자 예배 발전의 산실이었던 본 협회를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또 지금까지 협회를 위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발전시킨 선구자들의 수고를 되새기며 "현 시대의 교회음악인이 선배들의 정신을 교훈 삼아 선한 전통을 잘 이어가길 바란다"고 하였다.

♣ 하재송 교수 발표 요약문

두 번째 발제자인 하재송 교수는 "협회 창립 70주년과 더불어 WITH CORONA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회음악 정책, 음악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기 위해 우리 협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협회의 학술분과 위원들과 위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앞으로의 협회 사역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 포럼을 시작한다. 이 포럼의 주제에는 한국교회음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제안을 담았다. 교회음악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협회의 사역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회, 교단, 출판사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첫째, 협회와 학교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협회와 교단, 그리고 교회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협회의 수준 높은 교육 후에도 지속적으로 음악인들을 교단과 교회가 관리하며 엄선된 교회음악인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협회는 한국교회를 위해 새로운 찬송가 편찬 작업을 선도할 수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현행찬송가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찬송가를 편찬하는 작업을 실무적으로 진행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협회 구성원들이 교단과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새시대를 위한 찬송가 작업을 진행하면 단기간에 매우 좋은 찬송가를 편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글 박장우 편집위원~

祝

2022년 명예이사 추대

본 협회는 교회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두 분을 명예이사로 추대하였다.

2022년부터 본회의 명예이사로써 교회음악의 발전에 미칠 큰 영향을 기대해 본다.



문성모 목사

서울대 음대와 독일 오스나부르크 음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장신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 국민악회 회장을 맡고 있다. 21세기 찬송가에 3곡의 찬송가(48, 418, 556)가 수록돼 있으며, 총 35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하였다. 그는 앞으로 1000곡의 찬송가를 작곡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박정선 장로

한양대학교 음대를 졸업한 후 미국 이스트만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교장, 미국 템플 음악대학 교환교수, 러트거스 주립대에서 연구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 찬송가 작가회 공동 회장, 한국 코다이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21세기 찬송가에 3곡의 찬송가(178, 555, 596장)가 수록되어 있다.

이사동정 & 광고

* 2022 획기적합창세미나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 7월 28일(목)
 장소 : 사랑의교회 본당(예정)
 월요일의 합창마라톤과 수요일의 수요찬양축제도 가능하면 진행하고자 한다. 연주회 진행의 최종 확정은 5월 말의 코로나 시국을 참고하여 결정되어 질 예정이다

*제 1회 경기남부지회 성가중창콩쿨 개최

주최 : 경기남부지회(조기용 지회장)
 접수기간 : 5월 1일~6월 13일
 일시 : 7월 2일(토) 17:00
 장소 : 평촌아트홀
 참가자격 : 경기도내 교회 신자(19세 이상)
 문의 : 010-3635-7025, 010-7663-3390

이병직 고문

더보이스 챔버콰이어(세계장애인의 날 연주회)
 일시 : 4월 18일(월) 19:30
 장소 : 롯데콘서트홀

박신화 이사장

박재훈 목사 추모음악회 “요한 수난곡(박재훈 작곡)”지휘
 일시 : 4월 17일 (주일) 17:00
 장소 : 영락교회 베다니 홀

박동희 부서무이사

울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온 가족이 공연장 1열 “합창으로 듣는 인생 영화음악” 지휘
 일시 : 5월 19일 (목) 19:30
 장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김선아 부재무이사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창단 15주년 기념 ‘천지창조’지휘
 일시 : 4월 25(월) 20:00
 장소 : 롯데콘서트홀

부천시립합창단 가족음악회(음악으로 듣는 동화)

일시 : 5월 19일(목) 19:30
 장소 : 부천시민회관

회원 연회비 납부안내

본 협회 정·준회원은 연 1회 2만원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정·준회원에게는 획기적합창세미나 등록시 할인혜택, 학술세미나 등의 행사 시 초청, 협회 뉴스레터와 학술포럼 자료 등을 발송해드립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비 납부 계좌안내 국민은행 928701-01-162084 홍권옥(한교음협)

2022년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회

- 고 문 : 윤학원 김형석 오진득 이문승 전희준 안경재 여흥은 이대구 이상길 이병직
- 직전이사장 : 이기선
- 이 사 장 : 박신화 ● 부이사장 : 윤의중 ● 사무국장 : 임창은 ● 사무차장 : 공기태
- 서무이사 : 한창석 ● 부서무이사 : 박동희 ● 재무이사 : 홍권옥 ● 부재무이사 : 김선아
- 감 사 : 고덕환 강기성
- 각 분과 및 위원장 : 하계대학분과(이상길), 역사편찬분과(이문승), 학술분과(하재송), 홍보분과(김용훈)
- 명예이사 : 문성모 박정선
- 이 사 : 강영모 강옥민 구 천 권영일 김경란 김동민 김명엽 김성균 김영호 김옥자 김용훈 김은석 김인재 김희영 김희철 노영아 민인기 박창훈 석성환 손효동 신현민 신효철 양은호 양정식 오윤희 유병용 윤태빈 윤학봉 이근엽 이동훈 이상훈 이선우 장우형 전영혜 정승택 주성희 차영희 최경열 최훈차 하재송 홍정표 황철익 (가나다순)
 박지훈 백정진 우효원 이민영 조현진 (신임이사)
 류한필 박원선 박장우 임한귀 이현철 전은배 최낙기 (추천이사)
- 당연직이사 : 김인주(포항) 박종학(대전) 조기용(경기남) 이승욱(울산) 장철진(목포) 마광휘(인천) 김돈(영남)
 김성식(순천) 김희송(안산) 박희분(청주) 오승진(광주) 박철성(여수) 황녹연(천안) 박형주(광양)
- 편집위원 : 김용훈 박장우 류한필
 원고 및 이메일 문의 <kimilein@hanmail.net>
- 간 사 : 임은희